

사설

'나라 살리기'에 나서자

노동법, 안기부법 등의 날치기악법 총격에 이어 한보사태가 터져서 정국이 결집할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정경유착 비리사건인 '한보게이트'로 국가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정계·관계·재계의 검은 고리가 고구마줄기처럼 들쭉거리자 국민들은 입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분노와 허탈감에 몸서리치고 있다.

이러한 현혹대란의 파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계종 총무원장 일주스님을 비롯하여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김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들은 시국성명을 통해 개혁의 후퇴로 인하여 권력형 부정부패의 망령이 괴살아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모든 정치권력자들은 이러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애국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난국 타개의 주춧돌로 삼기 바란다. 우리는 더 이상 부정부패와 불의에 그달릴 수 없다.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가 귀순하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대북관계 등 들어야 할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들의 시국성명을 계기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고 위정정국을 타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김대통령의 말대로 철저한 수사, 성역없는 수사가 단행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 주변의 가신들이 몇몇 소환, 구속되고 있지만 야당이나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른바 '한보리스크'에는 더 많은 측근 인물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의혹을 받고 있다. 어물어를 넘어갈 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가려져야 한다. 썩은 것을 도려

내지 않고 덮으려 한다면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둘째, 날치기 위정정국과 권력형 한보비리사태를 일으킨 현정권은 국민 앞에 깊어 참회하고, 책임있는 관계와 정치계 인사들은 스스로 풀러나야 한다.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차제에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인 패거리 정치가 낡은 구조적 부정부패를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추란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경제를 되살릴 수 있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임시국회에서 노동법, 안기부법의 재심을 비롯하여 심종된 정치개혁, 경제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 등 각계각층에서 청원한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혁입법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한보사태로 물허벅기 쉬운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등의 날치기 악법을 바로잡는 재심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은 구태의연한 낡은 정치문화를 청산하고 갈등과 대립으로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기틀을 다지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당리당략에 매달려 독선과 아집과 무책임의 정치행태를 버리고, 건국 최대 위기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이다.

다섯째, 우리 모든 국민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여 민주주의정도를 건설해 나가는데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우리부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고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데 서로서로 돕게 되자. 우리 모두 연거푸 세계에 인격하여 불국정도를 일구어내는 보살도를 발휘할 때이다.

나라가 민주화되고 민족이 통일되어 세계의 문화중심국이 되도록 '나라살리기법국민운동'에 적극 동참하자.

열린마당

지역 상임법사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녹원)가 지난 1월 31일 관할지역을 4개로 나누고 지역포교를 전담할 상임법사(포교사)단을 출범시켰다. 전법의 해를 맞아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물론 다른 교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직지사 법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타교구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며, 중앙종무기구의 지원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정보교환등 지역포교 성과 커... 활동비 지급필수

법등 <직지사 부주지>

지난해 11월 직지사교사불자회와 운전자불자회가 창립되었다. 당사자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지만, 구미지역 포교를 전담할 상임법사(포교사) 진오스님의 역할이 컸다.

이같은 성과를 직지사가 관할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산, 포교활성화를 기해보자는 교구의 의지를 반영해 지난 1월 31일 이미 법사가 배치되어 있는 구미를 포함 상주·문경, 예천·김천 등 5개 지역에 상임법사를 임명했다.

포교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사할소임자보다는 법사가 배치되어 활동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소임스님들은 가람수호와 대중외교, 신도 교육 및 상담 등 본래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포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1인 이상은 되어야



효과적인 포교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들 법사들에게는 교구예산에서 매월 1백만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올해안에 2명의 법사를 추가로 임명할 계획이다.

직지사교구 상임법사(포교사)단은 각 지역에 맞는 포교방법과 교사 운전자불자회 등 직능단체와 직장법회의 창립은 물론 기존 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지역포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상임법사단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비합법적인 사찰에 대해서는 인사사고에 반

영, 책임명에 불이익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사단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상임법사단은 매월 모임을 가져 활동성과를 점검·비판, 효율적인 포교방법의 노하우를 나누고 실행단계 창립에 관한 정보도 교환한다. 또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타종교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공동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도 4개 지역에서 각 사암연합회와 긴밀히 유대해 규모 있게 진행하면서 봉축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포교는 무수히 얘기되어 왔다. 그러나 법사가 없어서 법회를 봉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단체가 있었어도 활동이 미약한 곳도 있다.

이제는 막연한 포교가 아니라 지역의 불자들을 구성하고 불자를 불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질 갖춘 재가포교사 활동공간 넓혀야

효종 <조계종포교연 연구실장>



조계종은 지난 1982년부터 포교사제도를 시행하여 침체된 포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간 포교사들의 역할과 그들이 포교활동에 기여한 성과는 매우 눈부신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단 개혁 이후 각 교구본사와 말사에 유급포교사를 두도록 포교법(포교법 제34조 2항)에 규정하여 각종 포교활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동안 어느 본사에서든 실시되지 않은 채 사문화되어 왔으며 각급 단위 사찰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여력이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단 개혁 이후에는 포교사 고시를 통하여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재가 포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렇게 배출된 포교사는 고시를 통하여 배출된 5백여명을 포함하여 82년 이후 2천7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재가포교사를 양성, 배출하는 틀은 있으나 위상과 활동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각 본사의 실정에서 담당 유급 포교사를 임명하여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같은 현실에서는 먼저 관내에 거주하는 포교사를 파악하여 이들을 자원봉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주말 휴일등에 사찰 관광객을 상대로 포교와 문화제 안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외국어 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사찰안내 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종단차원 의식·교육 통일안 마련해야

주경 <수덕사 포교국장>



지역포교사가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교사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독자적인 포교사무실을 뒤편 포교사의 지역적 연계를 뚜렷히 해야 한다. 이는 신도에게 스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포교사들로 하여금 사명감과 자신감 책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지역포교사는 불자들이 재적사찰 없이 신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도들이 지역 또는 소속사찰을 이탈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포교전략을 강구해 전방활동을 펴야 한다. 따라서 교구본말사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는 필수조건이다.

또 포교사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 각자의 포교 노하우를 나

누는 동시에 해당지역에 구성돼 있지 않은 실행단계 창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단과 교구본사는 재정 및 프로그램 지원에 포교사들의 활동을 도와야 한다. 특히 불교의식 및 기본교육 등의 통일안 종단과 교구본사의 몫이다. 또 활동에 비합법적인 사찰에 대해 인사사고에 반영, 책임명에 불이익이 미칠 수 있도록 하고, 법사단의 활동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대만평

현대만평



의지하면 쉬운데

목어

일본의 히로사치야교수가 쓴 <저승관광>이란 책이 있다. 이 책은 49일간의 명소코스를 거쳐 지옥 순례에 들어간다. 지옥에는 팔대열(八大熱)지옥과 팔대한(八大寒)지옥이 있는데 <저승관광>은 지하 5만km 지점에서 시작하는 팔대열 지옥을 여행한다. 제1코스인 등활지옥, 살생한 죄인이 가는 곳이다. 다음은 흡승지옥, 먹물로 죄인의 몸에 바를 독관처럼 눈금을 갖고 그 선을 따라 죄인의 몸을 쇠도끼나 톱으로 절단한다. 죄인의 살덩이는 차가운 바람이 불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와 형벌이 반복된다. 또 산과 산사이에 쇠줄이 걸려있어 줄타기를 하는데 반쯤 건너가면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에 거꾸로 떨어진다. 이런 형벌도 있다. 쇠줄 그물을 붙여 달군후 그 그물속으로 죄인을 밀어 넣는다. 뜨거운 물부림처럼 칠수록 쇠그물은 죄인의 몸에 감겨든다. 흡승지옥에는 이승에서 도둑질을 한 죄인이나 돈을 위해서 사악한 짓을 한

미리 가보는 지옥

돈 많은 망자가 떨어지는 곳이다. 지옥은 순서에 따라 뒤의 것일수록 깊고 괴로움도 심하다. 이 지옥에서는 1258천 억년간 고통을 당해야 한다. 살생·도둑질에 사육의 죄를 더한 중한지옥, 음주의 죄를 보낸 규환지옥을 지나면 거짓말이 첨가된 대규환지옥이 나온다. 대규환지옥에서는 불에 달군

날카로운 쇠바늘로 입술과 혀를 꿰뚫는다. 또 뜨거운 쇠집게로 혀를 뽑는 형벌도 있다. 혀를 뽑고 나면 잇달아 돌아오고 또 뽑기 때문에 고통은 계속된다. 초열·대초열 아비(무간)지옥을 거쳐 저승관광은 지옥순례에서 천상계로 넘어간다. 천지간과 극락순례를 마치고 여행의 종착역에 도착한 자는 말한다. "지옥에서 극락까지 순례하고 돌아온 코스와 같은 세기가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한보태풍에 말려 있는 이들은 음모·진짜배우·깃털·몸체 등을 낚을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신 검찰의 수사를 피해가도 평생 무간지옥을 면치 못할 것이다.

봉선사 통신강원

통신강좌 전문 불교강부

- 스님을 위한 전문반
 - 사미과
 - 사교과
 - 사집과
 - 의전과
- 재가불자를 위한 교양반
 - 교리강좌
 - 교양강좌
 - 경전강좌
 - 교양불교사

문의처 (0346) 68-1957 (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김문경

EXCELLENT! "GOOD."

DISPLAY THE PERFECT SOUND.....

-96 뉴욕 하이파이 오디오쇼와 96 서울 하이파이 오디오쇼에서 수많은 엔지니어가 극찬한 하이엔드 스피커

“내 귀를 의심케 했다” 왕영창(일본음향 전문엔지니어) 자랑스럽다! 이런 하이엔드 소리는 처음이다!

비로소! 한국인만의 소리를 찾았다 박병운 (마셜전자대표 음향전문수입상)

관객을 향한 "원음에 가까운 소리"에 놀랐다 김희경(작곡가)

■ 한국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하이엔드 제품 ■

최고 음향기기를 최소 비용으로 설치 및 대여

첨단 음향장비를 두루 갖추고 음성분사를 합니다.

- 음향기기 설치 : 법당, 경내 일체, 사무실
- 음향기기 대여 : 각종 실내 문화 행사, 야외 대형 이벤트

진절하고 완벽한 서비스! 철저한 A/S! 만족!

* 저희 관음음향연구원에서는 소비자 엔지니어의 요구에 부응하여 최고의 하이엔드 제품을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관음음향연구원 별관 시청실 3층)

설치실적

- 인천 용화사
- 단양 구인사(천태종 총본산)
- 관악산 영축암(성지)
- 화성 신홍사 청소년수련원
- 목동 청소년회관
- SBS프로덕션 STUDIO SETTING
- 한국음악방송 녹음실(여의도소재)
- 서울문화재단 방송국 녹음실
- 대구문화재단 방송국 녹음실
- 원광고 청주 교당
- 기타

라이브 공연 대여 실적

- 연동축제(부처님 오신날 '96) (동대문 운동장)
- 시청일 연꽃절(성지)('96)
- 보리수화상단 영리음악회(조계사 앞마당)
- 음운사 은행나무 축제(음운사)
- 화살사 문화대축제
- 문화체육부 주최 국악대제전(88마당)
- 공중문화회 주최 국악대제전(덕수궁)
- 중앙대학교 찬불동요 사육제(연강홀)
- 기타

Ginnara (음악의신)

21세기 음향문화 선도하는 -

관음음향연구원 · 관음프로덕션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82-1

TEL. 863-9649 (대) 859-1950 (직) FAX. 864-1066